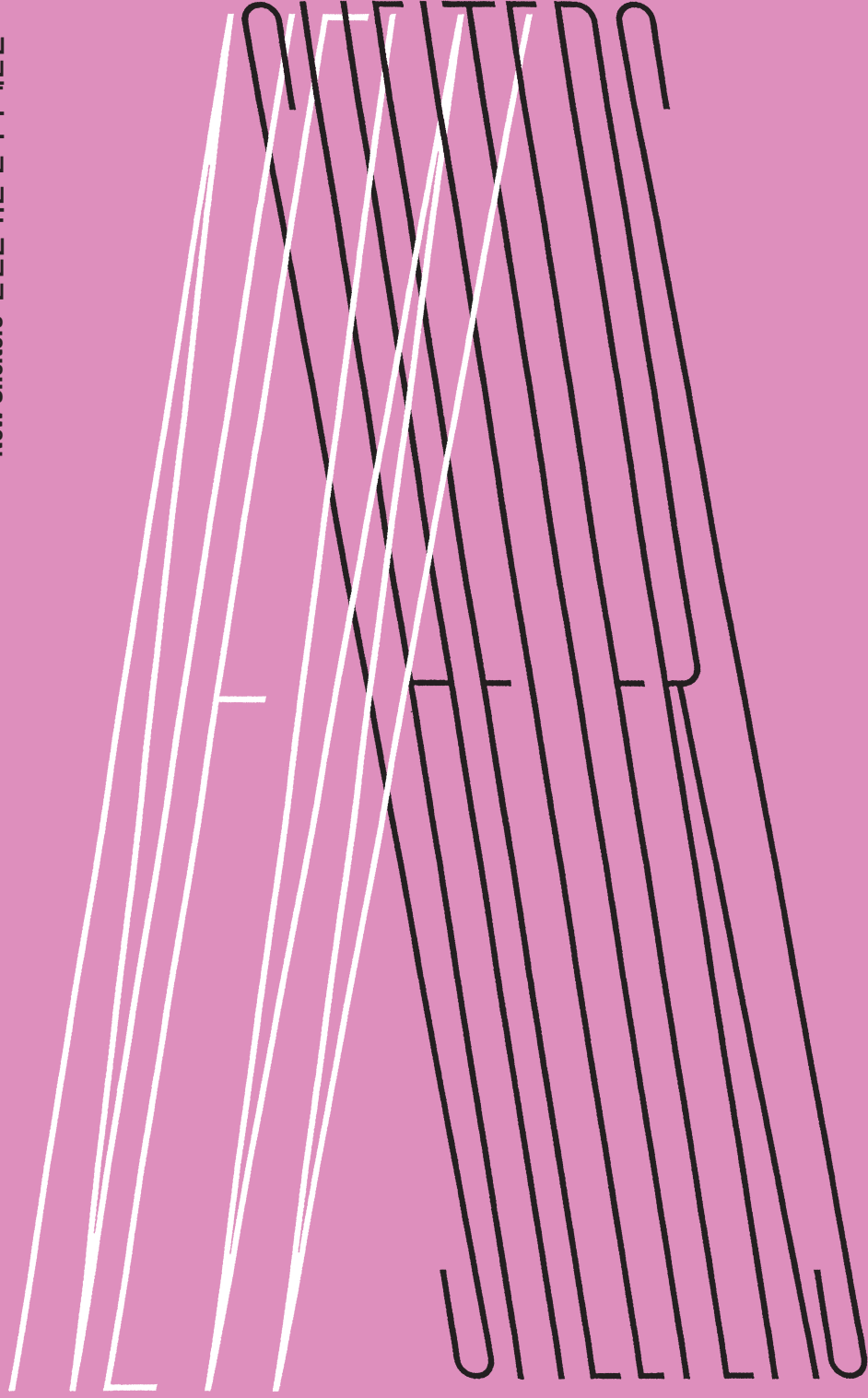


New Shelters: 난민을 위한 건축적 제안들



New Shelters:
난민을 위한 건축적 제안들

2016년 7월 8일 - 8월 7일
아르코미술관 제1전시실

참여 작가
김찬중 * 김경옥, 박진숙
레이 콜렉티브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박창현 * 이수학, 정성훈
에스오에이 * 김현미
황두진 * 양욱

영상기록 및 아카이빙 참여작가
오재우
차지량

기획-주관 정림건축문화재단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디렉터 박성태
진행 이경희
협력큐레이터 문희재

디자인 studio fnt
시노그래피 제로랩
번역 장통방

관람 안내
관람 시간 오전 11시 - 오후 7시
매주 월요일 휴관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오후 9시까지 연장

전시 해설
주중 오후 2시, 4시
주말 오후 2시, 4시, 6시

본 전시는 20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각예술 창작산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6년 시각예술 창작산실은 시각예술분야 우수 전시 기획을 지원함으로써 시각예술 창작에서 확산까지 전 단계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New Shelters:
Architectural Proposals for Refugees

July 8 - August 7, 2016
Arko Art Center 1 Exhibition hall

Participated Artists
Kim Chanjoong * Kim Kyoungok, Park Jinsook
RARE Collective * KARA
Park Changhyun * Yi Soohag, Cheong Seonghoon
SoA * Kim Hyun Mee
Hwang Doojin * Yang Uk

Filming & Archiving Artists
Oh Jaewoo
Cha Jiryang

Organized and Curated by Junglim Foundation
Hosted by Arts Council Korea

Director Park Seongtae
Manager Lee Kyounghee
Cooperated Curator Moon Heech

Graphic Design studio fnt
Scenography Zero Lab
Translation Jangtongb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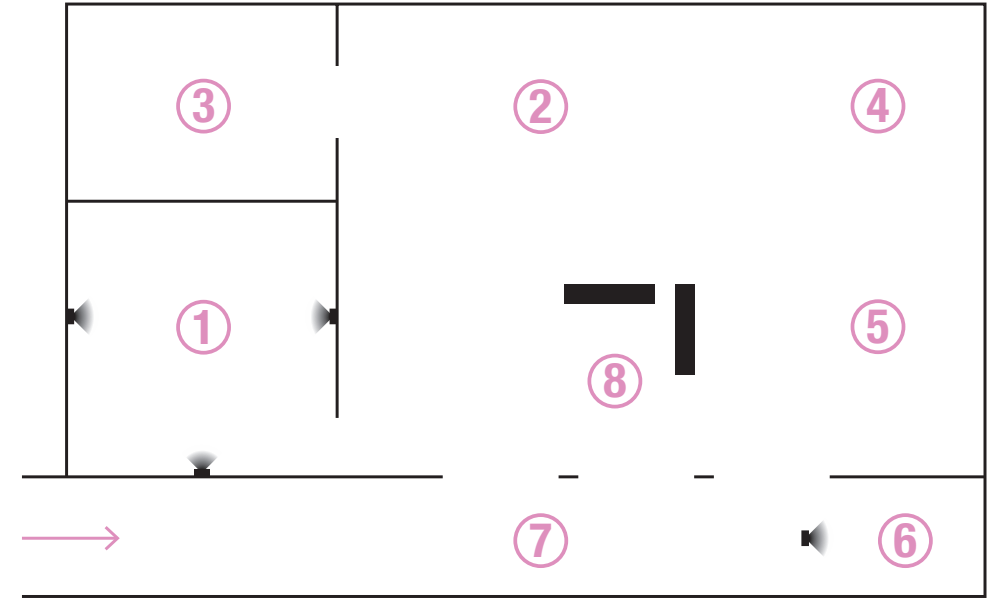
Opening Hours
11AM - 7PM
Closed on Mondays
Open Until 9 PM on the Last Wednesday of July

Guided Tour
Weekdays at 2PM, 4PM
Weekends at 2PM, 4PM, 6PM

This exhibition is one of the 2016 Support Exhibitions for Visual Arts, Arts Council Korea (ARKO). The program supports exhibitions with outstanding proposals in order to facilitate the overall process of exhibition, from the conception to promotion phases.

전시장 배치도

Floor Plan



- ① 빅데이터 셸터링
BIG DATA SHELTERING
건축가: 김찬중 더시스템랩
협업팀: 난민인권활동가 박진숙 에코팜므
빅데이터 전문가 김경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 ② 마음 한쪽 마당 한쪽 내어주기 프로젝트
Open Your Yard & Open Your Heart
건축가: 최춘웅, 최승호, 표창연 레이 콜렉티브
협업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③ 난초(難草), 식물난민
Refugee Plants, Vegetable Refugees
건축가: 박창현 에이라운드건축
협업팀: 조경가 이수학 아뜰리에나무, 정성훈 애림조경
- ④ 다시-정착
Re-settling
건축가: 강예린, 이재원, 이치훈 에스오에이
협업팀: 문화인류학자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 ⑤ 잠정적 완충지대
The Interim Buffer Zone
건축가: 황두진 황두진건축사사무소
협업팀: 군사안보 전문가 양욱

- ⑥ 나의 조국, 내가 없는
My Country without Me, 2016
참여작가: 오재우
- ⑦ 한국 난민 korean-sales.org
Korean Refugees, 2014-2024
참여작가: 차지량
- ⑧ 리서치 아카이브
Research Archive

전쟁·박해·폭력 등으로 오랫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난민이다. 목숨을 건 여정과 비인간적인 차별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비자발적 이주민의 숫자는 날이 날고 있다. 지난해까지 6천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새로운 고향을 찾아 나섰다. 이중 시리아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난민이나 유민이 됐다. 새로운 정착지를 찾는 기간 또한 장기화되고 있다.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 난민의 삶이다. 게다가 여성들은 성폭력과 같은 물리적 위험에까지 노출되어 있다. 누군가의 탐욕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반면 한국 사회는 난민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 있다.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경향이 턱없이 부족하고 제도적 장치마저 미흡하다. 누적 난민신청자는 1만 5천여 명이지만, 난민 자격을 인정받은 숫자는 580명 정도로 난민 인정률이 4%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이들을,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이들을 환대하는 데 인색하다. 그들을 나의 몫을 채가는 사람들로,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들로만 여긴다. 이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는 ‘청년 난민’, ‘주거 난민’ 등의 조어가 생겨나며 원래 정착하던 장소를 오히려 등지고자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난민을 위한 건축적 제안들’이란 부제를 갖고 있지만, 딱딱한 건축적인 작업을 선보이지는 않는다. 건축가와 협업 파트너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사회에서 밀려난 존재들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다수의 힘이 미치는 소수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된 세상에 새로운 거처를 상상해보고, 우리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존재들에 대한 전적인 환대를 안으로 끌어오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이들끼리의 연대를 제안한다.

디렉터 박성태

Refugees. People displaced from their homelands by war, persecution, or violence. Despite the life-threatening journey and heartless discrimination in countries where they seek refuge, the numbers of involuntary immigrants are increasing day by day. Last year alone, there were an estimated 60 million people searching for a new place to call home. Among others, almost half the Syrian populations are now refugees or displaced persons. The plight of the fleeing refugees is now exacerbated by the prolonged procedures required before they are finally resettled. Hence, many of them live with no end in sight to their refugee status. Moreover, female refugees face the very real danger of sexual abuse. The everyday lives of ordinary people are being torn apart by the avarice of others.

Meanwhile, Korean society has been slow to react to the refugee crisis. With limited experience of cultural diversity, Korea has yet to develop the institutional strategies this requires. Of the 15,000 persons who have applied for refuge in Korea to date, only 580 have been successful – an acceptance rate of under four percent. Clearly, we are hardly welcoming to people different from ourselves, especially those who are incapable of protecting themselves. They are thought of as people who will take what is ours and are thus harmful to the community. At the same time, as the number of Koreans who are unable to even afford their own home is increasing, so have new Korean expressions such as “youth refugee” and “habitation refugee” emerged, with some such people even dreaming of leaving their homeland.

Despite being subtitled “Architectural Proposals for Refugees,” this exhibition does not intend to present any concrete architectural works. Instead, architects and their collaborators will put their heads together to put forward new questions about people that have been marginalized from this society. To effectively accommodate those who are struggling to live among us in the global society, we should welcome them with warm hearts, encourage solidarity with them, and try to imagine a new type of shelter for a world where the majority overpowers the minority.

Park Seongtae, Director

정림건축문화재단은 한국 건축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건축의 사회적 역할과 건축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축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와 활발한 교류에 힘쓰며, 한국 건축문화의 균형잡힌 매개자가 되기 위해 미디어, 교육, 포럼, 전시, 공동체 연구, 출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el: 02-3210-4990~4993
 Fax: 02-737-7732
 E-mail: hello@junglim.org

03044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8길 19
 www.junglim.org

The Junglim Foundation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fostering a healthy ecosystem for Korean architecture. Aimed at revitalizing the local community through architecture and its social responsibility, the Foundation has been making efforts to establish active relationships not only through architecture but also the world of culture and arts. In order to be a balanced mediator of Korean culture of architecture, the Junglim Foundation has been encompassing a wide range of projects utilizing journalism, educational programs, forums, exhibitions, community studies and publications.

Tel: 02-3210-4990~4993
 Fax: 02-737-7732
 E-mail: hello@junglim.org

19, Jahamun-ro 8-gil, Jongno-gu, Seoul, Korea 03044
 www.junglim.org

모바일 시대를 사는 우리는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실시간 배출한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 소비 성향, 즐겨 찾는 곳 등으로 재가공이 가능하여 외부에서도 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는 다시 일상에 깊이 개입해 나와 교류하기도 한다. 모바일 기기를 통한 데이터홀름(data shadow) 현상을 이용하여 우리 사회의 새로운 조직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맞는 방법을 고민했다.

지금도 많은 난민이 전쟁, 재해, 박해, 기근 등의 이유로 고국을 탈출해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난민 수용의 보편적 시나리오인 난민촌과 같은 일시적 격리 시스템은 현지 정착지 사회와 난민의 융화 가능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포괄적 매뉴얼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기에 난민 개인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정보화되었듯이 난민 개인의 성향이 반영된 데이터홀름을 받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이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존 사회의 맥락 안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빅데이터 셸터링>은 모바일 기기의 위치기반을 중심으로 기존 사회 맥락인 1차 도시 정착지 내 난민의 일상 데이터를 일정 기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사회와 다른 난민과의 조우를 가장 가까이에서 돕는다. 남녀 간의 데이팅 사이트와 유사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을 통해 난민 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지역 사회를 매칭시켜 그들이 우리 사회에 좀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In this mobile communication era we are emitting massive amounts of information in real time without even fully realizing it. If such information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t could be reprocessed into other forms of data such as our consumption tendencies and frequently visited places. The reprocessed data could be used to better understand ourselves and reflect deep on our lives by interacting with oneself. Using the data shadow generated from our mobile devices, we could try to find ways to more effectively welcome these new members to our society.

At the very moment, many refugees are escaping from their homelands every day due to war, disaster, persecution or famine, heading for other countries and dreaming of a better life there, but the refugee camp, which is the standard system of receiving refugees, by temporarily "isolating" them, lowers the possibility of their social integration into the local community where they are settling. This system, taken straight from the "general refugee resettlement manual" furthermore ignores the specific needs of individual refugees.

It is necessary for us, as we do in our daily lives in the age of information, to pull together the data shadow that can reveal the tendencies of each individual refugee. For this to happen, they must be able to live in the context of the existing society without being isolated.

The "Big Data Sheltering," using the mobile devices' location services, collects and analyzes ove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data about refugees' daily lives in real time in their new urban environment and facilitates from up close encounters between them and their new society. Through data mining using a similar algorithm to those of online dating sites, a matchmaking service is provided between each individual refugee and the local community that would suit him or her best, so that they can resettle into the social community more easily and effectively.

김찬중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스위스 연방공과대학에서 공부했으며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건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의 한울건축과 케임브리지의 Chan Krieger Associates, 보스턴의 KSWA에서 실무를 쌓았으며, 귀국 후 현재까지 경희대학교 건축대학원의 설계전공 초빙교수로 재직하면서 THE_SYSTEM LAB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2006년 제10회 베니스비엔날레에 초청되었으며, 같은 해 베이징국제건축비엔날레에서 '주목받는 아시아 젊은 건축가 6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대표작으로는 <폴 스미스 플래그십 스토어> <연희동 갤러리> <래미안 갤러리> <KHVatec 사옥> <국립현대미술관> <큐브릭> 등이 있다.

김경옥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서 금속, 세라믹, 반도체 등의 재료를 공부했다. 대학원에 진학했다가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 크지 않다는 걸 깨닫고, 사람과 연결된 과학을 하고 싶어 전공을 산업공학으로 바꿨다. 산업공학 중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분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에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를 거쳐 현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에 재직 중이다.

박진숙

고려대학교 불어불문과를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이주 여성을 위한 문화 경제 공동체 '에코팜므'의 대표로 있으면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난민 여성의 자립을 고민하고 있다. 『이기적인 돼지 라브리에 가다』 『여자의 성』을 번역했고, 논문으로 「난민 가정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문화 기술지적 사례 연구」(연세대, 2008)를 썼다.

Kim Chanjoong

Kim received a Bachelor's degre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at Korea University, and his Master's degree at Harvard University upon studying at the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Zurich (ETH). Kim worked as the senior architect at the Hanwool Architecture Company in Korea, Chan Krieger Associates in the UK, and KSWA in the USA. He is currently a visiting professor in the Architecture Department of Kyunghee University and the Principal at THE_SYSTEM LAB in Seoul, South Korea. In 2006, Kim was invited to the 10th Venice Biennale, and in the same year, he was chosen as one of the six young Asian architects at the Beijing International Architecture Biennale. His major projects include *Paul Smith Flagship Store*, *Yeonhui-dong Gallery*, *Raemian Gallery*, office building for *KHVatec*, and *Cubric* for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Kim Kyoungok

Kim studied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at POSTEC. She changed her field of study to industrial engineering at graduate school upon realizing that she was more interested in natural science rather than in practicing sciences related to humankind. After having received her Ph.D. degree in the field of "data mining," she has focused on research on the effective analysis of data to achieve meaningful results. She has worked at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nd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Global Convergence of Industrial Engineering at SeoulTech.

Park Jinsook

Park majored in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at Korea University, and is currently a Ph.D. candidate in Child & Family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Since 2009, she has been president of EcoFemme, a cultural, economic community for migrant women, where she has examined self-supporting methods for displaced women living in Korea. She co-translated *How to be Your Own Selfish Pig: And Other Ways You've Been Brainwashed* and *Secrets of Eve*. Her thesis topic was "Ethnographic case study on the cultural identity of Congolese refugee families in Korea" (Yonsei University, 2008).

아무리 미천한 존재라도 그 생명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일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고, 그간의 불의를 책임지는 길이다.
— 알버트 슈바이처

우리 사회에서 난민 문제는 어쩌면 보호받지 못하는 ‘유기동물’과 같을지도 모른다는 은유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동물난민을 위한 새로운 건축을 제안한다. 유기동물은 주인의 변심 혹은 죽음, 재정적 문제, 충분하지 못한 사육지식, 이웃 간의 마찰, 재난 및 재해로 인한 이주 등으로 버려지거나 방치되고 있는 동물을 지칭한다. 2014년 기준, 전국적으로 81,000여 마리에 이르는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전국적으로 368개소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유기동물은 구조 후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공고기간 10일이 지나면 지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시설수용 및 관리능력, 질병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안락사 된다.

〈마음 한쪽 마당 한쪽 내어주기 프로젝트〉는 동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자신의 마당과 대문 공간에 목재 조립시스템(PREFAB)을 적용해, 유기동물의 임시대피소이자 입양장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동물의 상품화와 안락사를 반대하고, 구석진 공간에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여 돌봄의 미학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When we have a choice, we must avoid bringing torment and injury into the life of another, even the lowliest creature; but to do so is to renounce our manhood and shoulder a guilt which nothing justifies.
— Albert Schweitzer

The awareness of today's global refugee problem should be expanded in our society to include all life forms. In Korean cities, an increasing number of abandoned cats and dogs roam the alleys and rooftops. "Open Your Yard & Open Your Heart" is a campaign to share a portion of your yard, or back alley to be used as temporary animal shelters and feeding stations. As of 2014, the number of abandoned companion animals in Korea, including dogs, cats, etc., was estimated to exceed 81,000, but there are only 368 animals rescue centers in the country. Under the current law, ownership of abandoned animals is transferred to the regional government 10 days after the rescue, at which time they are euthanized, due to lack of room capacity.

"Open Your Yard & Open Your Heart" is a campaign currently being organized in the Mangwon district, by volunteers from the local community who are willing to open up a part of their yards to be used as temporary animal shelters, adaption centers, or feeding stations. Using a wooden pre-fab system, quick shelters can be set up by volunteers, and these shelters also serve to improve and activate streets and alleys of the neighborhood with the esthetics and ethics of care.

레이 콜렉티브

건축이 독립적인 동시에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가 가능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건축 디자이너들이 모여 협력하는 레이 콜렉티브의 집중 활동영역은, 도시리서치(Research), 사회활동(Activism), 마을재생(Regeneration), 그리고 교육(Education)이다. 소외된 지역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사라져 가는 도시의 모습을 기록하며, 건축의 작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결성된 레이 콜렉티브는 현재 중구 진양상가와 용산구 해방촌을 기반으로 활동 중이다.

RARE Collective

RARE Collective is a group of architects and designers who believe architecture is a uniquely social and cultural discipline that can bring together a diverse group of people and activities. Its primary activities include urban research (R), social activism (A), urban regeneration (R), and education (E), to discover and highlight forgotten places by recording and recovering neglected urban areas. RARE Collective is currently based in Jinyang (Sewoon) Arcade and Haebangchon, Seoul.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지구 상에서 가장 약자인 동물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비영리 시민단체로 2010년 3월 대한민국 농림수산물부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현재 올바른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구, 다양한 개 식용 반대 캠페인, 농장동물 복지증진, 오락동물 반대, 기타 채식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KARA -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KARA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speaks out regarding the suffering of animals, the weakest creatures on the planet. KARA was registered as an incorporated association of the Korean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 March 2010. It has initiated various campaigns against dog meat consumption and animal shows, and for farm animal welfare and the revision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s well as the vegetarian culture movement.

개망초, 바랭이, 방가지똥, 달개비, 무릇, 양지꽃, 쇠뜨기, 애기동풀, 꿩이밥, 질경이, 민들레, 강아지풀, 개구리밥, 마름.....

이제 이 풀들을 낯날오로 호명하는 일은 드물어졌고, 그들 하나하나를 소환하여 안부를 묻지도 않는다. 개개의 이름이 소멸된 자리에 잡초가 자랐고, 다시 그 자리에는 고층빌딩이 들어선다. 이 풀들이 어깨동무하고 뻗어나가던 자리에는 아스팔트가 깔렸다. 도시화에 밀려난 풀들은 바람에 자신의 척후를 보냈지만 생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제 어디고 그들을 환대할 땅은 존재하지 않는다. 길 떠난 척후는 난민이 되었고 도시에서 사라졌다. 그렇다. 눈길 닿는 곳에 그들은 없다. 우리가 난민을 애써 찾아보지 않듯 난초에 눈길을 줄 까닭은 없다. 하지만 여기 도시, 갈라진 아스팔트 틈, 이빨 빠진 보도블럭 사이, 옹벽의 벌어진 틈, 잘 가꾸어진 화단의 응달에 그들은 뿌리를 내렸고 아무도 환대하지 않지만 꽃을 피웠다.

〈난초(難草), 식물난민〉은 난민과 같은 처지가 되어버린 풀에 대한 기록이 될 것이다. 난민이 그러하듯 정착지를 확인하고, 난초 하나하나에 대한 이름을 돌려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더 전복적인 꿈을 욕망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Daisy fleabanes, crabgrass, sow thistles, spiderworts, Chinese squill, horsetails, celandines, wood sorrels, plantains, dandelions, duckweeds, water chestnuts...

We rarely call each of these plants by its own name, and do not even ask after each of these plants. The places that were once occupied by plants with these names that are now extinct and overgrown with weeds, are now replaced by skyscrapers. Moreover, the place where those plants once grew shoulder to shoulder is paved with asphalt. These plants, exiled by urbanization, scattered their seeds, but their fate is uncertain. There is no land that would receive them hospitably. The scouting seeds became "refugees" and vanished from the city. Indeed, nowadays, they are hardly seen anywhere. Just as we never make the effort to look for refugees, so do we also never pay much attention to these "refugee" plants. However, here in the city, through the cracks of asphalt and walls, between the broken paving slabs, and in the shade of a flower bed, these unwelcomed plants have still managed to take root and blossom.

"Refugee Plants, Vegetable Refugees" will be a record of plants that have become like refugees. It will check the settlement of these plants, restoring to each of them their own proud names. We may be desiring even more subversive dreams than we ever dreamed of!

박창현

부산대학교에서 미술학을,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에서 건축설계를 공부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축사사무소 사이(SAA)의 공동대표를 하면서 <SKMS이천연구소>로 제32회 건축가협회상을 받았고, 세계건축커뮤니티 건축상 수상을 비롯해 여러 작업을 진행했다. 2013년 (주)에이라운드건축을 개소하여 <조은사랑채>로 2014년 서울시건축상을 수상했고, <아틀리에 나무생각> <아웅산순국추모공원> 등을 완공했고, 2015년에는 <제주 무진도원>으로 김수근건축상 프리뷰상을 수상했다. 현재 <문호리 주택> <삼일서점> 등을 설계하며 한국, 일본, 포르투갈 등 젊은 건축가 40여 명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Park Changhyun

Park received his BFA from Pusan University and studied architecture at Kyonggi University. He was a co-principal at SAA architects office from 2005 until 2012. He received the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32nd Award for his *Icheon SKMS Institute* project, as well as a World Architecture Community Award, among others. He founded A Round Architect in 2013, and received the Seoul Architecture Award for the project *Joeun Sarangchae* in 2014. He has completed various projects including *Atelier Namu Saenggak* and *Aungsan Memorial Wall*, and received Kim Swoo Geun Preview Awards for *Mujindowon* in Jeju. He is currently designing *Moonhori Residence* and *Samil Bookstore*, interviewing around 40 young architects from different regions, including Korea, Japan, and Portugal.

이수학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고등사회과학대학원과 파리 라빌레트 건축학교에서 '정원, 조경, 지역'에 대한 DEA 학위를 취득했다. 『태도』와 『초벌그림을 그리다』(정성훈 공저)를 출간했으며, 일단의 사람들과 네 번째 열린 프로젝트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다>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아틀리에나무를 꾸리며 조경을 하고 있다.

Yi Soohag

Yi studied landscape architecture at Sungkyunkwan University, received a DEA from the Ecole d'Architecture de Paris La Villette in France, with research on "the garden, landscape and local." He has written *Attitude* and was co-author of *Esquisse*. With a group of collaborators he is now working on the fourth open project *Into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Currently, he runs Atelier Namoo and working as a landscape designer.

정성훈

고려대학교 원예학과 졸업 후 조경설계를 했으며,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에서 건축설계를 공부하고 (주)건축사사무소k2a에서 근무했다. 아틀리에나무에서 조경설계작업을 했고, 현재는 애림조경기술사사무소에서 작업 중이다.

Cheong Seonghoon

Cheong studied horticultural science at Korea University and has worked on landscape design projects. He continued his studies in architectural design at Kyonggi University, and worked at an architectural firm, k2a. He has also worked as landscape designer at Atelier Namoo and is currently working at Aerim Landscape Design.

국가가 난민의 장소성을 만드는 방법은 '난민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의 시간을 유예하고 계속 떠돌게 하는 것'이다. 난민 신청자는 법적으로 국가의 영토가 아닌 공항의 송환대기실이나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영종도 난민지원센터와 같은 비장소의 공간에서 길고 지난한 법적 절차를 밟다가,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고 난 후에야 정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연결망은 끊기고 개별적으로 정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특히 여성 난민의 경우 도시의 공장보다는 그나마 농촌이 일자리를 얻는 것이 더욱 쉽기 때문에 농촌 정착을 시도한다. 그런데 남성과 노인이 주를 이루는 인구 구성과 낮은 밀도의 농촌마을은 외부에서 들어와 정착하고자 하는 여성 이주자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새로운 장소에 이주했지만, 여전히 뿌리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도시에서는 높은 인구 밀도로 커뮤니티를 이루기 쉽지만 이와 상황이 다른 농촌에서는 쉽지 않다. 이 여성들은 주말마다 인근 도시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정체성을 확인한다.

〈다시-정착〉은 농촌지역 여성 이주자의 주거와 거주에 대해 묻는 작업이다. 건강한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집의 태도에 대해 살피고, 커뮤니티 공간을 모색한다.

'Prolonging the life of probation and making them continue to wander' is how a state creates a 'sense of place' for refugees. The displaced persons are to be first disposed of at the 'repatriation waiting room' in the airport which is not the legal territory of the state, or the 'Refugee Supporting Center on Yeongjongdo Island,' which is completely blocked off from the outside world. Passing through all the interminable legal processes, they await their fate in these 'non-places' before they eventually obtain refugee status and settle down. During this process, their social networks disintegrate, and they are faced with the situation of individual settlement.

As for female refugees, they attempt to settle down in the countryside because there are more opportunities for them to find a job there than in urban factories. However, the rural community, consisting of mostly males and the elderly, with a low population, do not receive them warmly. When they finally find a place, it is not always possible for them to put down their roots there. In the city, because of the high population, it would be easier to form a community than in such a rural community. These women thus try to participate in community activities in the neighboring city to assure themselves of their own identity.

"Re-Settling" is a project questioning the living environment and lifestyle conditions of the displaced female refugees. It also explores attitudes toward housing where they can produce healthy labor and overcome trauma, and it examines the possibilities of a community space.

에스오에이

2010년 서울에서 설립하여 도시와 건축의 사회적인 조건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강예린, 이재원, 이치훈 세 명의 파트너는 다양한 형식의 건축적인 고민을 실천하고 있다. 강예린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를 졸업했다. 이재원은 연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를 졸업했다. 이치훈은 연세대학교 건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2015년 현대카드컬처프로젝트18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에 당선됐고, 2015년 젊은건축가상을 받았으며, 2016년 제주도 <생각이심>으로 김수근프리뷰상을 수상했다.

김현미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사회문화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젠더와 비판적 문화연구의 관점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따른 사람과 자본, 문화의 이동을 연구한다. 이주민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 경제이주자, 미등록이주자, 난민, 이주아동 등의 삶과 이주정책 간의 관련성을 분석해왔다. 주요 저서로는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 공존을 위한 다문화』(공저)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 『이민정책론』(공저)이 있다.

SoA

Established in Seoul in 2010, the Society of Architecture (SoA) has been practicing various types of architectural experiments based on the analytic practices of social conditions of urban environment and architecture. Kang Yerin, Lee Chi Hoon and Lee Jae Woen are partners of SoA. Kang received B.A. and M.A. in geograph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and studied architecture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Lee Jae Woen majored in architecture at Yonsei University, and received a Master's degree fro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Lee Chi Hoon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its graduate school at Yonsei University. SoA won the Young Architects Awards and was selected for the "Hyundai Card Culture Project 18 - Young Architects Program 2015" by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This year, they were awarded the Kim Swoo Geun Preview Prize.

Kim Hyun Mee

Kim received a Ph.D. in socio-cultural anthropology from Washington University and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Yonsei University. She has been focusing on the research of the migration of people, capital and culture resulting from globaliz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critical and gender studies. Through local research on immigrants, she has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immigration policy and the living condition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economic migrants, unregistered immigrants, refugees, and immigrant children. She is co-author of various books including *We are Strangers Ourselves: Multiculturalism for coexistence*, *We all leave home: Living as migrant in Korea*, and *Immigration Policy*.

한반도의 급격한 정세 변화로 대규모 탈북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가정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다수의 탈북민을 한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전국의 약 250여 개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찾고자 한다.

〈잠정적 완충지대〉는 이 예비군 훈련장 중 하나를 임의로 선정하여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조성한 예비군 훈련장의 공간 구조와 내부 시설들이 어떻게 탈북민의 임시 거처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안한다. 작게는 탈북민이 생활하는 단위 공간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크게는 제한된 시설 안에서 공동체 생활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구성하려 한다. 더 나아가 예비군 훈련장이 탈북민의 임시 거처로 이용되는 기간과 이후에 주변 지역 사회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상호 영향 문제를 고민한다. 이를 통해 군사시설인 예비군 훈련장이 전혀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탈북민과 기존 거주자 간의 상호 안전한 공존을 확보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This project derives from the realistic scenario of a rapid change in the political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resulting in a large-scale influx of North Korean refugees. How, then, could adequate large-scale facilities possibly be secured to temporarily accommodate numerous North Korean refugees? To confront this question, the project explores the 250 training centers for reserve forces dispersed nationwide. One of these centers is selected and used for proposing a means to convert the space for sheltering North Korean refugees, employing the structure and facilities designed for training the reserve forces for military purposes.

The project explores everything from the design of units in which individual refugees can be accommodated, to developing systems and programs that would help to maintain community life in the limited facilities. Furthermore, it also examines appropriate periods for which the refugees could be sheltered in these centers, along with a study on the various issues, including the mutual impact between the shelter and the local community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their use as sheltering centers. Through such studies, this project would like to suggest that a reserve forces training center could become "The Interim Buffer Zone" where people from a completely different system prepare for the next step in their lives, and where refugees and the local residents can secure harmonious coexistence.

황두진

서울대학교와 예일대학교에서 건축학을 공부했으며 현대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 모두를 다루는 건축가 중 하나다. 공간과 구조, 형태에서 기하학을 조작하고 중첩하는 데 관심이 있는 그는 역사적 관점, 특히 아시아 모더니즘의 입장에서 생활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며, 단순한 형태주의 그 이상을 추구한다.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문화상, 한국건축가협회 아천상, 대한민국건축대전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했고, 유럽 4개 도시를 순회하는 한국현대건축전 〈메가시티 네트워크〉에 참여건축가 및 전시 디자이너로 동참했다. 2009년과 2014년에는 하버드대학교와 스미소니안 등을 포함한 다수의 대학 및 문화기관의 초청으로 두 차례의 미국 순회강연을 했다.

양욱

군사안보전문가로 서울대학교 법대와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줄곧 국방 분야에 종사해왔다. 중동 지역에서 군 특수부대를 훈련시키기도 했고, 아덴만 지역에서 대(對)해적 업무를 수행하는 등 민간군사요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연구위원이자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참과 육/해/공군의 정책자문위원으로 대한민국 국방에 대한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군사의 문화적 전용에도 관심이 많아 영화 〈쉬리〉의 군사자문을 맡았으며, 해외 군 관련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를 번역하기도 했다. 또한 밀리터리 칼럼니스트로서 『위대한 전쟁, 위대한 전술』 『Point of No Return: 세계의 특수작전』(1,2권)을 비롯한 다수의 군사전문서적을 출간했으며, KBS 등 지상파, 보도채널, 종편의 뉴스에서 군사 및 안보해설가로 출연하고 있다.

Hwang Doojin

Hwang studied architec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Yale School of Architecture. He is one of the architects who can handle both modern and traditional projects. Interested in controlling and layering geometry in space, structure and forms, he aims to understand living culture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especially of modernism in Asia, pursuing more than a simple formalism. He received various awards including the UNESCO Asia-Pacific Heritage Awards, Acheon Prize of the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and the Prime Minister's Prize of Korean Architecture Awards. As an architect as well as the exhibition designer, he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Megacity Network: Contemporary Korean Architecture* that toured four European cities. He has also been invited to lecture at various universities in the USA, including Harvard University in 2009, as well as the Smithsonian Institute in 2014.

Yang Uk

Yang is a military security expert who studied law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Management,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He has trained special military units in the Middle East and taken part in anti-piracy operations in the Gulf of Aden as a private military adviser. Currently, he is a research committee member of the Korea Defense & Security Forum and actively engages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as policy adviser for the army, navy and air force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and ROK Joint Chiefs of Staff. Also passionate about cultural appropriation of the military, he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of the film *Swiri* as a military consultant, and has translated foreign series and documentary films related to military affairs. He has also published books such as *Great Wars, Great Strategies* and *Point of No Return - World's Special Operation*, among others, and appears on various TV news and shows for KBS and several other cable networks.

리서치 아카이브는 난민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의 영상과 자료를 통해 관람객이 직접 난민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섹션으로 마련했다.

전시 참여 건축가와의 인터뷰 영상에서는 이번 전시 작품에서 난민을 이해하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으며, 전시장 벽에 있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른 '난민'의 정의를 통해서는 우리 인식 속의 난민 개념을 환기해 볼 수 있다. 함께 있는 도서 섹션에서는 국내외 난민들의 체험 수기와 관련 정책서, 그리고 한국과 동아시아의 이방인에 대한 시선을 비롯한 인문학적 고찰을 담은 책들을 배치해 이주와 난민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담았다.

이와 함께 본 전시를 위해 제작한 오재우의 다큐멘터리 작업 <나의 조국, 내가 없는>에서는 난민이라는 특수 상황을 한국에 들어온 난민들과 난민을 맞아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난민에 대한 주체적 정의와 난민을 만드는 사회적 구조와 우리의 태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모색해 본다.

차지량의 <한국 난민>은 대한민국 국민을 가까운 미래의 난민으로 상상해 시스템의 균형을 감지하고 선택하게 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로, 2014년부터 지속하고 있는 '판매', '대표', '협상' 시리즈를 영상으로 편집해 상영한다.

The Research Archive invites visitors to ponder the issue of refugees by providing videos and other materials that represent diverse perspectives on the matter.

In the interview with the architects participating in the exhibition, visitors can hear their distinct voices regarding the perceptions of refugees as visualized in the works on display. In order to draw attention to the issue of refugees, one of the walls in the gallery is dedicated to displaying the definition of the term "refugee" and exhibiting books addressing immigration and refugee issues. The book collection includes memoirs of refugees, volumes on official policies, and publications of different East Asian views on refugees in the region, including in Korea.

A documentary film "My Country without Me" created by Oh Jaewoo for this exhibition explores the situations of specific refugees. Through the stories of refugees in Korea and the people who receive them, it attempts to respond to questions about a possible independent definition of refugees, and also about the social structures and attitudes via which we are creating refugees.

"Korean Refugees" by Cha Jiryang is a participatory project that invites us to imagine Korean people as future refugees and leads the public to sense and choose the balance of system. It is presented as a compilation series of videos of Sales, Vote, Negotiation, which has been ongoing since 2014.

오재우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물과 예술, 장소, 역사의 구조적인 맥락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오고 있다. 기존에 통용되던 기호들을 다른 맥락에 두면서 새로운 의미로 읽히게 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해 다른 분야의 작가들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Oh Jaewoo

Oh has been producing works concerning the structural context of objects, arts, places and history of our society. The signs that have been commonly used in one place can signify another when placed in different situations. Employing diverse media, Oh carries out various experiments through collaboration with artists from different genres.

차지량

'시스템의 고립을 겨냥하는 개인'에 초점을 맞춘 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시스템에 상상력을 제안하는 개인'이 가능한 사회를 희망하며 작업한다. 다수의 전시, 예술제, 뉴미디어에 참여해 작품을 발표했다.

Cha Jiryang

Cha initiates participatory projects focusing on 'an individual targeting isolation of the system.' He wishes to achieve a society where 'an individual could suggest an imagination to the system.' He has participated in many exhibitions, art festivals and new media projects.

난민 포럼, 아티스트 토크, 기획자와의 대화는 모두 아르크미술관 1층 스페이스 필록스에서 진행하며 전시와 포럼의 내용을 확장한 별도의 자료집을 사후 출간할 예정입니다. 모든 부대행사는 한국어로 진행되며, 별도의 통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All events will be conducted in the Korean language, and interpretation is not available.

7. 9 Sat 3PM

난민 포럼 1
통계로 만나는 난민

한국을 찾는 난민은 어느 곳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온 사람들일까. 난민협약을 제정하게 된 세계 2차 대전 당시 난민의 상황에서부터, 오늘날 보편적인 시민권을 추구한다는 유럽연합을 붕괴 위기로까지 몰고 간 난민의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여건에 놓였다는 난민의 오늘날의 모습 등.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를 통해 난민을 만나고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들어본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난민과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난민과의 공동체를 한가로운 상상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을 마주하며 절망하다가, 2009년 난민인권센터를 창립하여 난민을 위한 법률조력, 긴급구호, 제도개선과 인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7. 9 Sat 4PM

난민 포럼 2
난민을 위한 현대의 아키텍처

난민이 제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현대의 구조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난민을 현대한다는 것은 우리라는 범주에 꾸겨 넣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선생이자 해석학적 파트너로 모셔야 한다. 그들로 인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 안의 어둠과 취약한 부분을 살피고, 우리의 정체성을 풍성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난민의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매료가 되어 처음에는 로펌에서 일하면서 프로보노로 난민소송을 하다가, 2011년 1월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or.kr)을 세워 상근으로 난민과 인식매매 피해자 등 취약한 이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7. 15 Fri 7PM

난민 포럼 3
난민, 사회적 존재, 그리고 인권

삶의 터전에서 뿌리가 뽑히기 시작한 난민들에게 새로운 터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져야 할 책무다. 모든 사람은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1조). 이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 조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난민 역시 사회적 맥락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본 강연에서는 이 난민의 인권 보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짚어보려 한다.

조효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저서로 『인권의 지평』 『조효재교수의 인권오디세이』 등이 있고, 역서로 『거대한 역설』 등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관여했으며 서울시 인권위원을 지냈다. 런던대학교, 옥스퍼드대학교, 런던정경대학교(LSE)에서 공부했고 하버드대학교, 베를린자유대학교, 코스타리카대학교에서 연구하고 가르쳤다.

7. 15 Fri 8PM

난민 포럼 4
세계 난민의 현실과 한국을 찾은 난민들

현실 사회주의권 몰락과 함께 세계체제의 질서가 흔들린 뒤 곳곳에서 일어나는 내전과 분쟁은 수많은 난민을 발생시키고 있는 한편,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협정은 이미 그 실효성을 상당 부분 잃었다. 신자유주의 기조가 지배하면서 이주민에 대한 축출과 배타의 힘이 연대와 통합의 기운을 압도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을 찾은 난민들은 GDP 인종주의와 순혈주의, 그리고 관료주의의 장벽까지 넘어야 한다.

홍세화 사회운동가-언론인

20년 가까이 프랑스에서 정치적 난민 자격으로 체류했다. 귀국 후 난민인권센터(NANCEN)의 공동대표를 맡은 뒤 지금은 일반회원으로 남아 있으며, <르몽드디플로마티크> 신문을 통해 세계 난민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에게 벌금을 무담보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장발장은행의 대표(은행장)를 맡고 있다.

7. 23 Sat 7PM

난민 포럼 5
일본의 배타주의의 고조와 계속된 식민지주의

최근 일본에서는 혐한론(嫌韓論)과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의 횡행 등 배타주의의 풍조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선진국 중 난민에 대해 가장 폐쇄적인 국가이기도 하다. 이런 현상은 일본에 거주하는 소수자인 재일 조선인에게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역사적-사상적 배경을 ‘계속되는 식민지주의’와의 관계에서 고찰하고, 그 극복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경식 동경대학교 교수, 저술가

재일조선인 2세로 태어나 와세다 대학 문학부를 졸업했고 도쿄게이샤이 대학 현대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디아스포라 입장에서 재일조선인의 역사와 현실을 화두로 글을 써왔다. 일본 에세이스트클럽상, 마르코폴로상 등을 받았고, 저서로 『나의 서양미술 순례』 『고뇌의 원근법』 등이 있다.

패널: 권영민 철학연구원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철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해석학자 폴 리퀴르에 대한 관심으로 리퀴르 철학의 뿌리인 현상학을 공부했다. 2013년에는 『철학자 아버지의 인문 육아』를 썼고, 현재 매일신문, 한국일보 등에 정기적으로 글을 쓴다. 다양한 이들이 함께 모여 철학을 공부하는 공동체인 ‘철학본색’에서 책을 읽고 있다.

7. 27 Wed 7 - 9PM

기획자와의 대화
박성태 (정림건축문화재단)

7. 30 Sat 3PM

아티스트 토크
레이 콜렉티브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7. 30 Sat 4PM

아티스트 토크
박창현 × 이수학, 정성훈

7. 30 Sat 5PM

아티스트 토크
황두진 × 양욱

8. 6 Sat 3PM

아티스트 토크
김찬중 × 김경옥, 박진숙

8. 6 Sat 4PM

아티스트 토크
에스오에이 × 김현미

2016년 7월 8일 - 8월 7일
아르코미술관 제1전시실

July 8 - August 7, 2016
Arko Art Center 1 Exhibition hall

창
제
의
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림건축문화재단